

5 갈뱅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연구

최정자 / 평택대학교 Th. D. 과정, 조직신학



1. 서론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여기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었다. 고대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론과 구원을 중심으로 기독교론이 전개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예수 안에 있는가?”라는 문제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두 본성론의 문제였다.

본 논문의 주제를 기독교론 중에서도 삼중직을 선택한 하나의 이유는 역사적 이유로서 16세기 역사적 정황과 21세기인 오늘날 역사적 정황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16세기 당시 갈뱅은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논쟁 속에서 특히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찢고, 손상시키고, 공허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직분을 박탈하고 마침내는 그리스도까지도 망령되어 여겨 버린다.”¹⁾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직과 제사장직

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베드로 수위권과 로마 교황 수위권 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이다. 이들의 마리아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직을 침식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하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으며, 원죄가 없고 죄 없는 삶을 살았으며, 육체를 갖고 승천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이다. 특히 구속사역에서 마리아의 중보자성이 주장되어³⁾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중보자직이 희석된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사제도와 성직자의 사도권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권을 사제들이 찬탈하고 있다.⁴⁾ 1870년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 무오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무오성은 하나님의 본질이나 속성에 속한 것이지, 인간의 본질이나 속성에 속할 수가 없다. 여기서 교황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⁴⁾

16세기의 칼뱅의 기독교론 중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문제는 21세기 오늘날에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또다른 역사적 상황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종교적 다원주의 상황과 절대적 가치가 문제시되고, 상대적 가치와 대화와 타협의 관용이 통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교다원주의의 파급으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침해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폴. F. 니터에 의하면, 개신교 주류의 신학자들은 바르트와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모델과 분명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모든 종교들은 구속사에서 한 역할

1. 존 칼빈, 「골로새서 주석」(서울: 성서원, 2001), 534쪽
2.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149-150쪽.
3. 위의 책, 157-158쪽.
4. 위의 책, 161-162쪽.

을 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니터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그리스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⁵⁾ 그는 또한 앞으로 인류의 종교적 삶은 적어도 종교다원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영위될 것이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변경에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요, 여행자들의 이야기에서 오르내리는 흥미거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⁶⁾ 실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타종교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실존적 현실이며,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기독교 절대성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모든 종교가 진리를 소유한다는 비신앙적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⁷⁾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불린다.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대신하신다.⁸⁾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 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시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서 계신다. 이 말은 메워져야 할 간격과 구속되어야 할 죄와 폐기되어야 할 원수됨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다.⁹⁾ 구약성서에 따르면, 중보자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중보기도와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삼고 우리를 대신하신다(출 32:30-32; 사 53). 특별히 신약성서가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 부음을 받았다는 그의 이름이다. 그리스도는 예언자, 제사장,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쁨 부음을 받으셨다.¹⁰⁾

5. 폴 F. 니터, 변선환 역,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69쪽.
6. 위의 책, 17쪽.
7. 조재국, 「에큐메니칼 학의 한국교회 수용에 대한 성찰」 한국기독교학회 역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0), 317-318쪽.
8. 최윤배, 「복음주의 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강의안, 2004), 90쪽.
9. 위의 책, 90쪽.

루이스 벌코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선지자직(the prophetic office), 제사장직(the priestly office), 왕직(the kingly office)의 세 직분으로 나뉜다.¹¹⁾ 벌코프는 구약의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능적, 역사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체를 체계화시키기를 꺼린다.¹²⁾ 초기 교부들 중 몇몇이 이미 그리스도의 상이한 직분들을 언급하지만, 중보자의 세 직분을 구별하는 일에 중요성을 잘 인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칼뱅이다.¹³⁾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삼중직의 구별은 신학의 불문율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채택되었지만, 직분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때로는 선지자직이, 때로는 제사장직이 우선되었으며, 왕직이 최우선시되는 경우도 있었다.¹⁴⁾ 칼뱅은 예언자, 왕, 제사장 순서로, 개혁파 정통주의자들과 오토 베버는 예언자, 제사장, 왕의 순서로, 바르트는 제사장, 왕, 예언자 순서로 언급하고 있다.¹⁵⁾

벌코프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삼중직 직분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실은 삼중직과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성령론적을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¹⁶⁾ 칼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나 「칼뱅의 요리문답」(1537)에서 성령으

10. 위의 책, 90-91쪽.

11.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역, 「벌코프 조 직신학(하)」, 594쪽.

12. H. Berkhof, *Christelijk Geloof*, 284쪽, 최윤배, “개혁신학”(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2학기 강의안), 39쪽에서 재인용.

1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역, 「벌코프 조 직신학(하)」, 593쪽.

14. 위의 책, 594쪽.

15. 최윤배, “개혁신학”, 39쪽.

16.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역, 「벌코프 조 직신학(하)」, 594-595쪽.

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이중직, 즉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칼뱅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사로서는 언급하지만, 이 교사직을 우리는 메시아적 또는 성령론적 삼중직으로 볼 수 없다.¹⁷⁾

칼뱅은 체계화된 삼중직의 분류는 「기독교 강요」(1536)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체계화시켰던 것이다. 그는 초기에, 부처의 「공관복음주석」에서 삼중직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스트라스부르크(1538-1541) 시절 부처의 영향으로 칼뱅은 1542년의 「칼뱅의 요리문답」과 최종판 「기독교 강요」(1559)에는 예언자직을 첨가하여, 삼중직(예언자, 왕, 제사장)을 나란히 언급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의 예언자직과 제사장직에 대한 희생이 없이 그리스도의 왕직을 강조하고 있다.¹⁹⁾ 칼뱅은 「기독교 강요」(1559) II xv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다. 칼뱅은 삼중직의 용도와 목적을 ‘구원’의 근거와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삼중직분론을 영적인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다.²⁰⁾

최윤배는 교회사 속에서 교회와 교회의 직무가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두 반대진영과 논쟁이 있었다고 말한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대신하여 성직자들(신부, 추기경, 교황 등)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존엄성을 빼앗아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일부 개혁장로교회의 전통에서는 목사는 예언자직을, 장로는 왕직을, 집사는 제사장직을 수행한다고 비판한다. 부처와 칼뱅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리

17. 최윤배, “부처와 칼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서울장신대학교, 「서울장신논단」 제7호(1999), 142쪽.

18.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268쪽.

19. 최윤배, “요한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최윤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83쪽.

20.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173쪽.

스도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삼중직 자체를 교회의 직무와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²¹⁾ 교회의 직무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무시한 로마 가톨릭교회와 일부 개혁 장로교회와는 정반대로,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 등을 비롯한 열광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만인제사장직의 이름으로 교회의 직무를 무시했다.²²⁾ 그러나 부처와 칼뱅은 만인제사장직을 기독교론과 결부된 성령론의 관점에서 이해한다.²³⁾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임명하신 삼중직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²⁴⁾

그것은 고대의 왕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가시적인 기름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야말로 과거에 행해졌던 외적 기름 부음의 실체(verite)라는 것이다.²⁵⁾

칼뱅은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의 모든 은혜와 함께 뿌려진 것”²⁶⁾이라고 한다. 칼뱅에 의하면, 삼중직 안에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삼중직의 열매와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 있다고 말한다.²⁷⁾

그러므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견고한 기초를 발견하여, 그에게 신뢰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긴 직무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21. 최윤배,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부서와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 신학과 목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3-44쪽.

22. 위의 책, 44쪽.

23. 위의 책, 44쪽.

24.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3쪽.

25. John Calvin,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 1541/1542』, 110쪽.

26.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3쪽.

27. John Calvin,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 1541/1542』, 110쪽.

그리스도의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는 까닭이다.²⁸⁾

우리는 조직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기독교론 중에서 삼중직을 연구함으로써, 기독교신학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고, 포스트모던 시대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유일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삼중직에 대한 바른 이해는 모든 신학에 이르는 올바른 지름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목회와 선교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신앙관을 제시해 줄 것이다.

우리는 본 논고에서 칼뱅이 이해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하여 예언자직, 왕직, 제사장직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2.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별코프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과 이후에도 그의 교훈과 이적, 사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신자들에게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통해서 그의 예언자직을 수행하신다.²⁹⁾ 그리스도는 예언자로서, 언어 전달로서만이 아니라 성육신, 속죄의 죽음, 부활, 승천 등 계시된 사실들으로써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예표와 의식, 구속사의 기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섭리적 인도의 형태로 가르치셨다.³⁰⁾ 김균진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³¹⁾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언자들처럼 단지 하나님에게서 받아 대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말씀이다. 그는 예언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육신된 말씀이다.

28. Inst., II xv 1.

29.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역, 『별코프 조직신학(하)』, 596쪽.

30. 위의 책, 596쪽.

31.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 270쪽.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다.³²⁾ 갈벱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³³⁾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히 1:1),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³⁴⁾ 라는 말씀 안에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최고의 완성이니 신자들은 예언자를 기다리라고 한다(단 9:24). 갈벱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신다. 직무의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직무를 가능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다.³⁵⁾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상 생애에서 이룩하신 말씀 사역(예언자)을 그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효력적으로 계속하십시오, 왕의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³⁶⁾

갈벱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교회론적 모티브가 있다.³⁷⁾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가르치는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의 몸 전체를 위해서 받으셔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³⁸⁾ “성령은 모든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근원이 되는 샘물이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주의 손으로 묘사되었다.”³⁹⁾ 즉,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의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2.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역, 「별코프 조 직신학(하)」, 596쪽.

33. Inst., II xv 1.

34. Inst., II xv 1.

35. 최운배,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부서와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 신학과 목회」, 44쪽.

36. 위의 책, 44쪽.

37. Inst., II xv 2.

38. Inst., II xv 2.

39. Inst., II xv 3.

갈벱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서 주셨다고 한다.⁴⁰⁾ “그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3)고 할 때, 그는 조금 다른 뜻을 생각한다. 즉,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 가치가 있는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은혜의 무한한 전체를 깨달았다는 뜻이다. 그렇게 때문에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내가 ……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귀한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의 위엄은 그가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갈벱은 그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말씀에서 ‘아들’이란 말은 그가 다른 종들보다 우월하심을 보여 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칭호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른 하나는 ‘선생’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며,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를 교회 안에서 가장 높고 특이한 참 선생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²⁾ 갈벱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이 우리의 주와 스승 되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하나님의 생도요 가솔이 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⁴³⁾

3.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서 땅과 하늘의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의미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분이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마지막 날에는 저리로서 산자와

40. Inst., II xv 2.

41. Inst., II xv 2.

42. 존 칼빈, 「공관복음주석」, 118쪽.

43. 위의 책, 118쪽.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이요, 니젤에 의하면, 칼뱅은 제2의 지위(地位)를 '그리스도의 왕직'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왕직으로서의 주권과 관련시켜 메시아라는 이름을 갖는다.⁴⁴⁾ "그의 왕국의 주권은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흡족히 배부시키기 위하여 가지신 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증거하신다."⁴⁵⁾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1536) 초판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왕으로 임명되어 천지의 모든 권세를 다스린다고 말한다.⁴⁶⁾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이 되어 마귀와 죄와 죽음과 지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고 말한다.⁴⁷⁾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리스도의 승귀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다. …… 부처와 마찬가지로 칼뱅에게도 가장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직이며, 이를 지향하는 이는 아론이 아니라, 벨기세덱이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제사장직을 유지한다.⁴⁸⁾

칼뱅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 삼중직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의 왕직이 강조점을 얻고 있다.⁴⁹⁾ 그의 왕국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독자들이 이해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하여 언급해도 무용할 것이다.⁵⁰⁾ 칼뱅이 그리스도의 왕직이 영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44. 빌헬름 니젤,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14쪽.

45. 위의 책, 114-115쪽.

46.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133쪽.

47. 위의 책, 133쪽.

48. 최윤배, "부처와 칼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서울장신대학교, 「서울장신논단」 제7호(1999), 142쪽.

49.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83쪽.

50. Inst., II xv 3.

왕직은 특별히 성령론적으로 규정된다는 말이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왕직의 성격은 영원성에 있다고 말한다.⁵¹⁾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의 아들의 손을 거처서 자기의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시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신다. 이 예언의 실현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볼 수 있다."⁵²⁾ 즉, 그리스도는 그의 왕권을 통하여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신다."는 뜻이다. 칼뱅에 의하면, 교회는 격렬한 동요로 끊임없이 고통하며 무섭고 비참한 폭풍들이 무수한 재난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안전하다고 말한다.⁵³⁾

아무리 많은 강적들이 교회를 전복할 음모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임명하신 그 확고부동한 결정을 전복시킬 힘은 그들에게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악마는 세계의 총력을 동원하더라도 교회를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를 토대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⁵⁴⁾

칼뱅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고 말한다.⁵⁵⁾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를 아버지의 대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으며, 이 대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가진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룰테면 간접적으로 통치하며 보호하기로 정하셨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설명한다.⁵⁶⁾

51. Inst., II xv 3.

52. Inst., II xv 3.

53. Inst., II xv 3.

54. Inst., II xv 3.

55. Inst., II xv 5.

갈뱅에 의한 그리스도의 왕직은 구원론적 모티브가 있다.⁵⁷⁾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 이후에 비로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전(全) 생애를 통하여 왕이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해방자'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사 사탄의 줄을 끊으시고 우리를 가두어 둔 청동의 문을 파괴했다. 우리의 죽음을 면케 하기 위해서 그가 이룩하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⁵⁸⁾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백성에게 풍부히 주시며, 영적 원수들의 모든 공격 앞에 결코 굴하지 않는 용기로 백성의 방위력을 강화하신다. 이것을 보면 그는 내외 양면으로 통치하실 때에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⁹⁾

갈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왕직은 종말론적 모티브가 있다.⁶⁰⁾

그가 겸손한 자들을 위하여 목자와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처럼…… 그 반대로 그는 모든 자만한 자와 반역자들을 질그릇같이 깨고 쳐부술 철장과 흠을 지니신다.…… 우리는 이미 이것의 실례를 보았으나 그 완전한 능력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최후 통치 행위가 될 것이다.⁶¹⁾

갈뱅은 우리 각 개인은 '영원성'에서 영감을 받아 축복된 영생불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상적인 것은 모두 이 세상과 시간에 속했

56. Inst., II xv 5.

57. Inst., II xv 3.

58. Inst., II xv 2.

59. Inst., II xv 4.

60. Inst., II xv 3.

61. Inst., II xv 5.

으며, 참으로 순식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들어올리기 위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언명한다.⁶²⁾ 갈뱅은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의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미치며, 그들의 완악한 모반을 파괴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그의 통치권이 최후 통치 행위가 될 것이라고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⁶³⁾

4.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최윤배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겸비와 고양 상태 모두에 해당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부활·승천하셔서 자신의 지상 생애에서 이룩하신 제사장직을 그가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효력적으로 계속하신다고 한다.⁶⁴⁾ 니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효력은 증보자와 화해자라고 한다.⁶⁵⁾ 증보자라 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계의 죄를 속하며, 흠과 티가 없으신 증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서 의로우신 저주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총애를 얻어야 했다. 그리스도는 회목제로서 이 일을 하셨다. 그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신과 우리 사이를 화복케 하셨다.⁶⁶⁾ 그리스도가 화해자라 함은 "그의 화목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신과의 어떠한 교제도 가질 수 없다. 그리스도가 그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62. Inst., II xv 3.

63.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268-269쪽.

64. 최윤배,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부서와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 역음, 「칼빈 신학과 목회」, 44쪽.

65.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15쪽.

66. 위의 책, 115쪽.

신의 은총과 구원을 얻게 하셨다.”⁶⁷⁾는 것이다. 니젤에 의한 화해란 신은 불가사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동시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대하여 분노하시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화해자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증오가 제거되었다는 것이다.⁶⁸⁾

니젤과 마찬가지로 칼뱅은 제사장직에 관하여 화해와 증보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다고 말한다.⁶⁹⁾

제사장직에 관하여는 간단히 말할 수밖에 없다. 제사직의 목적과 효과는 그리스도가 모든 흠에서 정결케 하는 중보자이며, 그의 깨끗함으로 우리가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하나님의 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채용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개입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확보하였다. …… 그의 죽음을 통한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별책을 없게 하고, 그는 우리의 별을 위하여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까닭이다.⁷⁰⁾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를 만인제사장직에 동반자가 되게 하셨다.⁷¹⁾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시는 중보자(Mediateur)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를(=그 직무)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길을

67. 위의 책, 115쪽.

68. 위의 책, 115-116쪽.

69. Inst., II xv 6.

70. Inst., II xv 6.

71. John Calvin,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 1541/1542」, 112쪽.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⁷²⁾

칼뱅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과를 말소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으므로,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⁷³⁾고 말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⁷⁴⁾ 칼뱅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에게 바치며, 자유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며 향기롭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원래 가증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성결이 몸에 가득히 배어 순결하고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다.⁷⁵⁾

칼뱅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미사제도를 비판한다.⁷⁶⁾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만족하지 않고 감히 그리스도를 새로이 이 제물로 바치노라고 하며, 날마다 이 짓을 지도하며, 미사에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노라.” 하는 것을 비판한다.⁷⁷⁾ 결국, 칼뱅은 삼중직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성도 속에서 항상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교회와 세상에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을 예언자로 선포하고,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 영화롭게 해야 한다.⁷⁸⁾

72. 위의 책, 112쪽.

73. Inst., II xv 6.

74. Inst., II xv 6.

75. Inst., II xv 6.

76. Inst., II xv 6.

77. Inst., II xv 6.

78. 최윤배,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 부서와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 엮음, 「칼빈 신학과 목회」, 44-45쪽.

1) 요약

벨코프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삼중직 직분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실은 삼중직과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성령론적으로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⁷⁹⁾ 칼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나 「칼뱅의 요리문답」(1537)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이중직, 즉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칼뱅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사로서는 언급하지만, 이 교사직을 우리는 메시아적 또는 성령론적 삼중직으로 볼 수 없다.⁸⁰⁾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삼중직의 구별은 신학의 불분율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채택되었지만, 직분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때로는 선지자직이, 때로는 제사장직이 우선되었으며, 왕직이 최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었다.⁸¹⁾ 칼뱅은 예언자, 왕, 제사장 순서로, 개혁파 정통주의자들과 오토 베버는 예언자, 제사장, 왕의 순서로, 바르트는 제사장, 왕, 예언자 순서로 언급하고 있다.⁸²⁾

칼뱅은 「기독교 강요」(1559) 2권 15장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왕직, 제사장직, 예언자직)을 논하고 있다. 특히 예언자직과 제사장직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왕직을 강조하고 있다. 예언자직과 제사장직은 왕직의 기초와 근거가 되고 있다. 삼중직의 용도와 목적을 구원의 근거와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 강요」(1536)

79.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역, 「벨코프 조직신학(하)」, 594-595쪽.

80. 최윤배, “부처와 칼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서울장신대학교, 「서울장신논단」 제7호 (1999), 142쪽.

81. 위의 책, 594쪽.

82. 최윤배, 「개혁신학」, 39쪽.

초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체계화시켰다. 그는 초기에 부처의 「공관복음 주석」에서 삼중직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로서 그의 삼중직은 성령론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자신이 지상 생애에서 이룩하신 말씀사역(예언자)과 구속사역(제사장)을 그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효력적으로 계속하십시오, 왕의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직무를 사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직무를 가능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다.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예언자로서, 언어전달로서만이 아니라 성육신, 속죄의 죽음, 부활, 승천 등 대한 계시된 사실들로서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예표와 의식, 구속사의 기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섭리적 인도의 형태로 가르쳤다. 예언자직은 구약예언의 성취이다.⁸³⁾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성취하신다. 직무의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의 예언자의 위엄은 그가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⁸⁴⁾ 칼뱅은 예언자직이 우리의 주와 스승이 되어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생도요, 가솔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서서 땅과 하늘의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의미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분이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 삼중직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의 왕직이 강조점을 얻고 있다.⁸⁵⁾ 그의 왕국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독자들이 이해하

83. Inst., II xv 1.

84. Inst., II xv 2.

85.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83쪽.

기 전에는 그것에 대하여 언급해도 무용할 것이다.⁸⁶⁾ 칼뱅이 그리스도의 왕직이 영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왕직은 특별히 성령론적으로 규정된다는 말이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왕직의 성격은 영원성에 있다고 말한다.⁸⁷⁾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이 되어 마귀와 죽음과 지옥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왕직을 통하여 교회를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며 보호하시며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해방자'이며 그가 십자가에 달리사 사탄의 줄을 끊으시고 우리를 가두어 둔 청동의 문을 파고했다.⁸⁸⁾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왕직은 종말론적 모티브가 있다.⁸⁹⁾ 그가 겸손한 자들을 위하여 목자와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처럼…… 그 반대로 그는 모든 자만한 자와 반역자들을 질그릇같이 깨고 쳐부술 철장과 흠을 지니신다. …… 우리는 이미 이것의 실례를 보았으나 그 완전한 능력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최후 통치 행위가 될 것이다.⁹⁰⁾

칼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효력은 중보자와 화해자라고 한다.⁹¹⁾ 중보자라 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계의 죄를 속하며, 흠과 티가 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것이다. 의로우신 저주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충애를 얻어야 했다.⁹²⁾ 그리스도가 화해자라 함은 "그의 화목하시는 역사가 없이

86. Inst., II xv 3.

87. Inst., II xv 3.

88. Inst., II xv 2.

89. Inst., II xv 3.

90. Inst., II xv 5.

91.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15쪽.

92. 위의 책, 115쪽.

는 우리는 신과의 어떠한 교제도 가질 수 없다. 그리스도가 그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의 은총과 구원을 얻게 하셨다."⁹³⁾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대신하여 성직자들(신부, 추기경, 교황)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직과 제사장직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베드로 수위권과 로마 교황 수위권 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했다. 칼뱅은 만인제사장직을 기독교론과 결부된 성령론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를 만인제사장직에 동반자가 되게 하셨다.

2) 평 가

첫째, 칼뱅은 때로는 선지자직이, 때로는 제사장직이 우선시되었으며, 왕직이 최우선시되는 경우도 있으며, 예언자, 왕, 제사장의 순서로 언급하고 있다. 부처의 영향으로 1542년의 「칼뱅의 요리문답」과 「기독교 강요」(1559)에서 예언자직을 첨가하여 삼중직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직분을 위해 기름부으심을 받았으므로 성령론적으로 규정된다. 칼뱅은 삼중직의 용도와 목적을 '구원'의 근거와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말하며, 삼중직분론을 성령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셋째, 칼뱅의 「기독교 강요」(초판)에서나 「칼뱅의 요리문답」(1537)에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매시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이중직, 즉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의 영향으로 1542년 「칼뱅의 요리문답」과 「기독교 강요」(1559)에는 예언자직을 첨가하여 삼중직(예언자, 왕, 제사장)을 나란히 언급한다. 특히 그리스도의 예언자직과 제사장직에 대한 희생이 없이 그리스도의 왕직을

93. 위의 책, 115쪽.

강조하고 있다.

넷째, 교회와 교회의 직무가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두 반대진영과 논쟁을 했는데,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대신하여 성직자(신부, 추기경, 교황 등)가 그리스도의 권능과 존엄성을 빼앗아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부활·승천하셔서 자신의 생애에서 이룩하신 말씀사역(예언자)과 구속사역(제사장)을 그가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효력적으로 계속하시므로써, 왕의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직무를 사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이 그리스도 자신이며, 직무를 가능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다.

여섯,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은 사도성을 통해서 계승된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모든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흘러 오게 하는 근원이 되는 샘물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사하시며, 그의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신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돕고 보호하신다.

일곱, 그리스도의 왕직은 구원론적이며 종말론적인 모티브가 있다. 즉, 그리스도가 부활·승천 이후에 영원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왕이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통치하실 때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여덟, 그리스도의 증보자직의 효력은 증보자와 화해자이다. 즉, 증보자라 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계의 죄를 속하며, 흠과 티가 없으신 증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화해자라 함은 그의 화목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신과의 어떤 교제도 가질 수 없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

리에게 신의 은총과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증보자직은 우리로 하여금 만인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참고문헌

1. 동양서적

- 김군진. 「기독교 조직신학」 Vol. I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4.
 이종성. 「주기도문·십계명·사도신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_____. 「조직신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4.
 이장식. 「기독교신조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2.
 이형기.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윤철호. 「그리스도론(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정홍열. 「사도신경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_____. 「성령론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부서와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_____.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8집,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0.
 _____. 「칼빈의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의 담지자로서 그리스도」,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_____. 「부처와 갈뱅에게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서울장신대학교(편). 「서울장신논단」 제7호, 1999.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신학해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2. 서양서적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John T. McNeill

2 vol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5.

Kuyper, A. *The Work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 Eerdmans, 1946.

3. 번역서적

Berkhof, Louis. *Systemetic Theology* Vol. I, 권수경·이상원 역 (상), 고양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_____. *Systemetic Theology* vol. II, 권수경·이상원 역 (하), 고양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Bloesch, Donald G.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Vol. 1 이형기·이수영 역, 「복음주의 신학의 정수」 1.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by Ford Lewis Battles,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고양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_____. *Les Catéchismes de L'Église de Genève*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 1537/ 1541/ 1542」. 서울 : 도서출판경진, 1995.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 외 3인 공역. 「기독교 강요」(1559),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8.

_____. *The Calvin Commentary*,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역. 「공관복음 주석」, 서울 : 성서원, 2003.

Wendel, F. *Calvin*, 김재성 역,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Wi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3.

4. 논문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미간행 신학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1999.

박계순. “갈뱅의 성령론,” 미간행 목회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5.

한경훈. “칼빈이 본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신성론,” 미간행 석사학위(M. Div.)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91.

원식연. “종교다원주의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1995.

5. 기타

최윤배. “갈뱅,”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2학기 강의안.

_____. “복음주의 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2학기 강의안.

한국기독교학회(편). 「신앙과 신학」 제7집.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0.

한국복음주의신학회(편). 「성경과 신학」 제11집. 서울 : 기독교지혜사, 1992.